

나주 남평역, 추억의 간이역으로 되살아난다

남도해양관광열차 매일 두차례 정차 명승지 연계 '머무는 역' 탈바꿈 기대

과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의 작품 배경이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 가운데 한곳으로 꼽히는 나주 남평역이 옛 향수가 물씬 풍기는 추억의 공간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무정차역으로 지정된 이후 열차가 서지 않았던 남평역이 지난달 27일 첫 운행에 들어간 남도해양관광열

차(S트레인)가 정차하면서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경전선 간이역 중 한곳인 남평역에는 광주~마산까지 운행하는 S트레인 2호선 열차가 광주역과 송정역을 거쳐 매일 두차례 정차한다. 오전에는 8시48분에 도착해 15분간 정차하고 오후에는 1분만 쉬었다 간다.

한 쪽의 살아있는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남평역은 파란 맞배지붕 역사 주위로 수 십년 묵은 벚나무 고목과 아늑하게 피어난 코스모스 물결이 장관을 이루며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 역으로 진입하기 직전 곡선구간에서 속도를 줄이며 진입하는 열차와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역사 주변 벚꽃은 사진 동호인들에게 훌륭한 작품소재가 되고 있다.

이처럼 빼어난 경관 덕에 지난 2006년 12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남평역은 스쳐 지나가는 간이역에서 이분만 쉬었다 간다.

고 있어 동서간 교류 확대와 양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행구간을 광주~부산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S트레인 정차역 지정은 계기로 추억의 간이역인 남평역을 매개로 주변에 산재한 명승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남평역은 지난 1930년 간이역으로 출발해 1948년 5월 보통역으로 승격됐다가 1950년 여승반란사건 당시 소실돼 1956년 7월 신축됐다.

나주=손영환기자 yacson@



전통 농기구 체험을 하고 있는 광주 큰별초등학교 학생들.

담양 '용오름 에코힐링체험마을' 인기

청소년 농촌·동물농장 체험

용이 승천하는 형세를 닮았다는 담양군 월산면 용오름(龍興)마을의 '용오름에코힐링체험마을'이 학습 스트레스에 지친 아이들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마을에는 최근 광주큰별초등학교 1학년생 219명이 찾아 압화양초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펼치며 힐링을 만끽했다.

학생들은 압화양초만들기와 함께 다양한 농촌체험을 했다. 마을 앞에 펼쳐져 있는 들녘을 둘러보며 황금색으로 익어가는 벼를 직접 보고 만져보는 것은 물론 잡자리와 사마귀 등 여러 곤충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마을 곳곳에 전시돼 있는 농기구인 썰구와 서래질기 등을 체험하면서는 전통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감성을 키우며

선조들로부터 이어온 농경사회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토끼와 오리, 송아지에게 먹이를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즐기는 동물농장체험을 통해 맑은 소리 지르고 웃다 보니 그동안 쌓인 학습 스트레스가 절로 날아가는 자연 힐링이 됐다는 반응이 많았다.

용오름에코힐링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준 이장은 "용오름마을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산림자원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산촌생태마을이 됐다"며 "수생식물과 곤충생태 학습장을 비롯해 미꾸라지잡기, 식물심기 등 계절에 맞는 다양한 체험거리들을 운영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웃으며 떠들 수 있는 자연 힐링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은빛 물결' 천관산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로 꼽히는 장흥 천관산에 기암괴석과 어우러진 역사가 만개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오는 6일에는 제20회 천관산 역사제가 천관산 정상 연대봉~역새능선(환희대)에서 열린다.

(정홍근 제공)

'광양 전어잡이소리' 민속예술축제 출전

전남 대표 선정

'광양 전어잡이소리'가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전남 대표로 출전한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 진월면 신담마을의 '광양 전어잡이소리'가 오는 5~6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주최로 충북 단양에서 열리는 제5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전남 대표로 출전한다.

전남 전어잡이소리는 전어를 잡을 때 어로작업의 능률을 높이고 힘을 북돋우기 위해 부르는 토속적인 가락의 소리다.

노랫는 소리, 그물 내리는 소리, 그물 당기는 소리, 가래질 소리, 만선 긴소리, 도부꾼 전어 퍼주는 가래질

소리 등 총 6소리로 구성된 남해안 지역의 전형적 어로요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광양에서 열린 제38회 전남민속예술축제에서 으뜸상을 받으면 이번 전남 대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전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전통민속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서형일 광양 전어잡이소리 보존회장은 "광양만의 고유한 흥과 멋이 있는 소리 재현을 통해 광양을 알리고 가을철의 대표 먹거리인 광양전어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출연 포부를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보성읍 체육공원 주변에 18홀 파크골프장

장애인·노약자 등 여가·체육활동 활성화

향토시장·차박물관 연계

관광 명소로 활용 방침

보성군은 장애인, 노약자, 노인들의 여가와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보성을 물론리 체육공원 주변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보성군은 올해 녹색나눔숲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8여헥타의 녹색기금을 활용해 당초 4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 장애인 등 파크골프장 이용 대상자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18홀 규모로 이를 확대하고 주변에 이용객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파크골프장 중앙에 황톳길을 조성하고 주변에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편백나무 등의 다양한 나무를 심어 숲속 치유공간으로도 이용할

기로 했다.

보성군은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를 이달말까지 완료하고 인근 향토시장, 녹차밭, 차박물관 등과 연계해 관광 명소로 활용을 방침이다.

군 한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휴양 숲으로 조성해 군민 건강 증진과 행복 지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크골프는 골프와 게이트볼의 경기 요소를 혼합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공원(Park) 등 녹지공간을 활용한 골프(Golf)라고 해서 파크골프라 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목포출신 근대 여류소설 선구자 '박화성 기념공원' 이달 초 준공

6억 들여... 창작산실 세한루 등 복원

목포가 배출한 예술인 회원 5명 가운데 한 명이자 근대 여류소설의 선구자인 소영 박화성(1903~1988)의 창작산실인 세한루(歲寒樓)가 복원됐다.

목포시는 '박화성 세한루터 소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6억6600만원(토지보상비 포함)을 들여 지난해 5월 착공해 10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용당동 986번지인 이곳은 박화성 여사가 1937년~1962년까지 25년 동안 살며 '고개를 넘으면' 등 문학사에 길이 남을 명작들을 쓰며 후진을 양성한 곳이다.

소공원에는 박화성 여사의 흉상

을 비롯해 세한루, 솟을 대문, 목포 찬가와 연보가 수록된 표지석 등이 설치돼 있다.

세한루터 소공원 조성 사업은 박화성 여사의 유족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등 토지보상과 관련해 추진과정에서 난관이 많았으나 목포시의 남다른 노력 끝에 결실을 보게 돼 귀감이 되고 있다.

박화성 여사는 1903년 4월 16일 죽동 9번지에서 2남2녀 중 막내딸로 태어나 정명여자학교와 숙명여고를 거쳐 일본여자대학 영문학부를 졸업했다.

21세 때 최초의 단편소설 '팔삭둥이'를 발표하고 이광수 추천을 받아 1925년 '조선문단'을 통해 '추석

전'으로 데뷔했다. 29세인 1932년에는 한국 여성 최초로 장편소설인 '백화'를 동아일보에 연재했고, 1968년 대한민국 예술회원에 위촉됐다.

작품 경향은 해방 전후로 이분(二分)할 수 있으나 이데올로기의 일관성과 작품 세계는 변함이 없다. 풍부하고 박진감있는 문장과 현실을 꿰뚫어보는 독특한 리얼리즘의 작품으로 많은 수작을 남겼다.

한편 목포시가 추진 중인 '목포진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구 목포 일본영사관 전시시설 제작설치',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보수' 공사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이달 초 준공을 앞두고 있는 박화성 세한루터 소공원. 목포시는 6억6000만원을 들여 17개월만에 박화성 선생의 창작산실인 세한루와 그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했다.

이달의남도 전통술 '고흥 유자막걸리'

전남도는 10월의 대표남도 전통술로 고흥 청정영농조합협회의 유자막걸리(사진)를 선정했다.

지리적표시 제14호로 등록된 고흥 유자는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된다. 유자막걸리는 이 시기에 수확한 고흥 유자를 깨끗이 손질해 냉장 보관해놓고 사용한다.

유자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6%로 국내산 쌀과 청정 지하수를 사용해 탁주 특유의 부드러운 감칠맛과 유자향이 잘 어우러져 카테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고흥 청정영농조합협회는 이 유자막걸리로 유자주 제조방법 특허 등 등록했고,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남도 전통술 품평회에서도 장려상을 받았다.

올해는 정부가 인증하는 술 품질 인증을 획득해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고흥=박영진기자 kroh@kwangju.co.kr



목포기독병원, 대학병원급 최첨단MRI 도입

목포기독병원은 프리미엄 기술이 탑재된 대학병원급 최첨단 3.0T MRI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장비는 서남권 최초로 3차원적인 영상제공은 물론 환자 중심 프리미엄 기술이 탑재됐다.

기존 MRI보다 신호의 세기와 선명도가 2배 이상 높아 인체 모든 미세구조를 정확히 진단하며 고휘상도 이미징 구현으로 한 차원 높은 영상을 제공한다

다양한 검사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

어 진단율을 높이는 데 좋은 장비다.

이 병원은 지난 2008년 전신암 조기진단 장비인 PET-CT를 도입, 암 조기발견 등의 효과를 봤다.

전남서 대표원장은 "서남권 최초로 진단율을 높인 MRI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최첨단 의료장비와 실력 있는 의료진을 영입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여수박람회장 새이름 공모합니다

15일까지 11월 당선작 발표

여수세계박람회장 새 이름을 찾는다.

여수박람회재단은 지난 2012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세계박람회가 열렸던 여수박람회장의 이름을 새로 짓기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Expo2012Yeosu.kr)을 통해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당선작은 11월 초 재단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상금(100만원)도 지급한다.

한편 조직위는 애초 지난 4월 20일 재개장에 오는 20일 폐장하

려던 박람회장 운영계획을 바꿔 빅오 시설을 제외한 전시시설 20일 이후에도 계속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재단은 재개장 이후 관람객이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꾸준한 인기에 보답하고자 폐장 계획을 변경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미래해양과학의 비전을 제시할 기념관과 카약, 요트, 수상스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장,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등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강해 복합문화콘텐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